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저장경찰대학교	기숙사비	755,000/한 학기
파견지역	저장성 항저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O)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기타비용	보험료 300元

■ 파견자 정보

성 명		학 과	
성 별		학 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07. .

파견자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저장경찰대의 가장 큰 메리트는 한국인이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수업 때는 인원이 3명이어서 개인 과외 같은 느낌 입니다.(인원은 매학기 변동) 수업은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학교 국제교류처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수준에 맞게 개설됩니다. 상담 결과 저희는 5급을 배우기로 하였고 월,화,목,금은 5급수업을, 수요일은 중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5급 수업의 선생님들은 항주에서도 유명한 저장대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실습중이었습니다. 두 분의 성향은 조금 달랐지만 두 분이 많이 상의하시고 수업을 해주셔서 혼란스럽지 않았고 톡톡이 중국 젊은이들의 신조어도 알려주셔서 실제로 친구들에게 말하면 이 단어를 어떻게 아냐며 많이 놀라며 서로 더 재미있었습니다. 중국문화수업은 중국 경찰분이 선생님이셨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선생님이 한국어를 못하십니다.) 문화 수업은 중국의 결혼, 교육과정, 출산, 경극, 지역별 특징 등을 배웁니다. 한 시간 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이 처음에는 마냥 어려웠지만, 선생님께서 천천히 말하라며 기다려주셨고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하는 단어를 많이 도와주셔서 말이 트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끔 ppt발표도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 . 음식, 음악, 옷, 지폐, 결혼 등 모두 다 가능했습니다. 처음 학기에는 중국어 대본을 다 써서 대본만 보면서 발표를 했다면 점점 자신감을 얻어서 대본을 보지 않고 단어 몇 개만 써가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수업 마지막 1시간에는 (수업이 하루에 3시간씩) ‘큰 귀 투투’ 라는 중국판 짱구 만화방송을 보고 관련된 토론을 하고 만화 속에서 새로 배운 단어를 이용해 스스로 문장 3개정도를 말하면 수업이 끝났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항저우는 상해 밑에 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길어지거나 주말에 시간을 내서 상해로 여행을 가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중국 첫 여행을 혼자서 상해를 도전해 봤고 이후에는 중국 친구들 집에 놀러가 집 주변을 여행했습니다. 친구들이 항저우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지방에도 살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여행하면 그 곳만의 문화도 바로 알고 든든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 지역의 사투리를 들을 때 정말 신기합니다. 나랑 잘 말하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면 눈을 땀 수 없습니다. 학교 대문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이 있어서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30분 정도 가면 ‘항저우 동잔역’ 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상해나 북경으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대중 자전거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증금(100위안이상)만 내면 1시간에 1위안을 주고 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교환학생 끝나기 전에 퇴환을 누르면 다 돌려주니 걱정마세요. 학교 바로 주변에는 우메이(큰마트), 라지지에(먹자골목)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시후(항저우 대표관광지. 매일 다르게 보이니 많이 가보세요), 바오룽(학교에서 15분거리 백화점), 쌍광따다오(유명인들의 손도장이 있는 곳 맛집도 많습니다.), 티엔지에(쌍광따다오 주변 백화점인데 여기 게임장 재미있어요), 흐어팡지에(중국의 옛거리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 성화곡(시후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 너무 너무 너무 이뻐요) 등 갈 수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꼭 가서 놀아보세요. 처음 혼자는 당연히 어려울테니 중국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하세요. 적응이 좀 되면 혼자서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항저우는 위험한 도시가 아니에요. 항주의 날씨는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뼈가 시리게 춥고, 여름에는 가만히 있는데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깐요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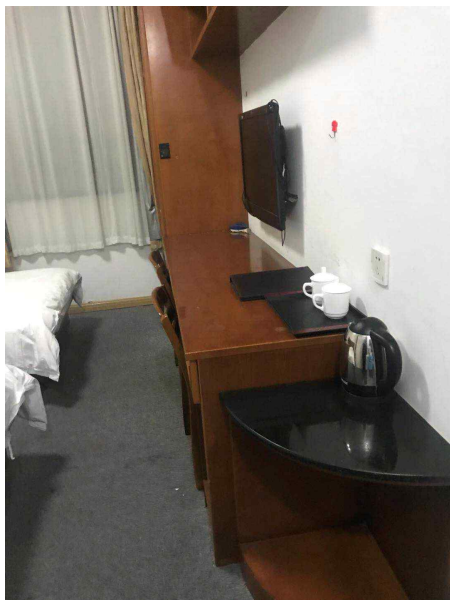
■ 기숙사 정보

비 용	755,000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매일 아침 호텔 종업원분이 오셔서 휴지통을 비워주시고 화장실을 청소해줍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에 침대보를 갈아줍니다.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 청소 해야합니다. 모르는 것은 전화로 카운터에 물어보세요.		
주요사항	호텔 물건 파손시 돈을 물어줘야하니 조심하세요. ex)슬리퍼, 이불, 수건 정수기는 100위안 보증금으로 방에 두고 물통(20위안)을 사오면 되는데 정수기 필터를 언제 갈았는지 모른다고 해서 물을 따로 사다 마셨어요. 아니면 기숙사 1층에 정수기가 있는데 물병 하나사서 따라서 드세요. 공짜! 다만. 저녁 10시에서 아침 5시는 이 정수기가 꺼집니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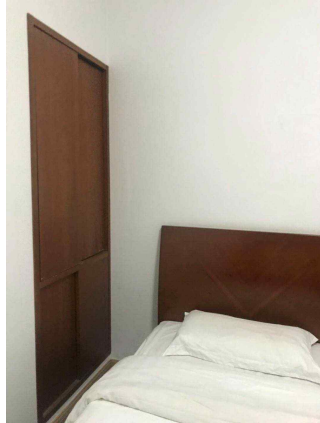
한국인의 인원이 짝수면 룸메가 있지만 만약 홀수라면 한명은 혼자 방을 쓰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침대두개를 왼쪽으로 밀어서 넓게 사용하세요 공간도 훨씬 넓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창문쪽으로 붙이시면 겨울에 아주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본인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세요. 편하게 살아야죠
다만 한국 돌아가기전에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가셔야합니다. 가끔 중국 친구를 방에 데려와서 노트북을 티비에 연결해서 영화를 보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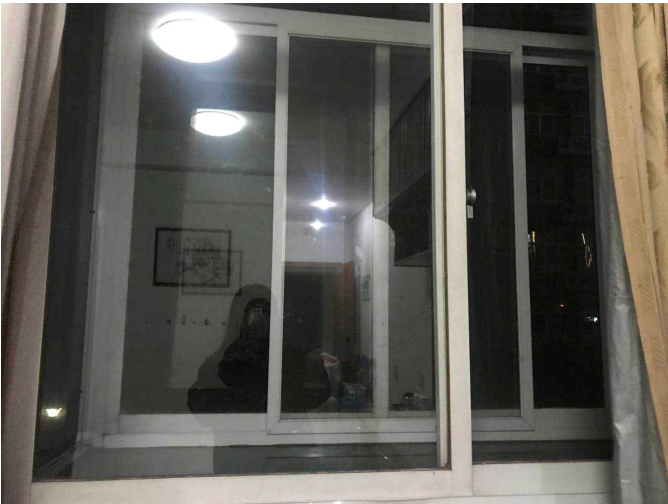
드라마를 보세요. 한국영화에 중국 자막이 있거나 중국영화에 중국 자막이나 한글 자막있는 것을 찾아서 같이 팩 붙이고 양꼬치랑 맥주 먹으면서 행복이란 이것이구나 싶습니다. 티비 뒤에 케이블 선 있습니다. 모르시면 전학기 파견자에게 물어보세요. 에어컨도 난방과 냉방이 아주 잘 작동되서 방에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다만 공부할 때 전등이 좀 어두울 수 있어서 스탠드를 구매하세요. 타오바오에서 사는걸 추천!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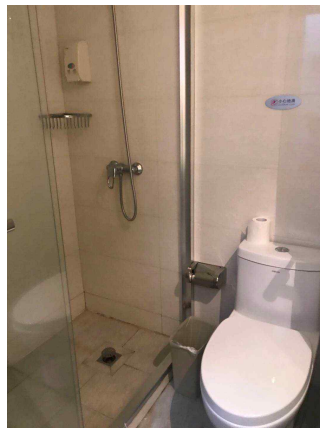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수납함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수납함이 타오바오에서 삼천원부터 아주 저렴하니 구매하는 것도 좋아요. 두명이 방을 같이 쓴다면 옷장을 아예 한명은 왼쪽 한명은 오른쪽을 쓰시는 게 편해요. 침대를 어느 것으로 쓰냐에 따라서 옷장도 똑같은 방향으로 쓰면 좋아요. 자세한 것은 룸메랑 상의하고 나누세요. 신발장이 없어요. 그래서 신발장도 타오바오에서 매우 저렴하니 구매하세요



사진에 보이는 곳이 바로 베란다입니다. 옷을 걸어서 말릴 수도 있고 밖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 방 쪽이 아침마다 경찰대 친구들이 집합해서 노래를 부르는 곳이어서 아침마다 자동 자명종을 맞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창문을 닫고 암막 커튼도 잘 치면 소리가 작아져요. 저는 이미 노래 외워서 중국 친구를 만나면 가끔 외웠다고 불러줬어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햇빛이 아주 잘 들어와서 너무너무 좋은 방입니다.



화장실은 매일 아침마다 청소 해주셔서 거의 항상 깨끗했습니다. 샴푸나 바디워시는 중국에도 좋은 거 많으니 와서 사셔도 되고 얼굴 화장품만 한국에서 사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만큼 싸고 좋은거 없어요. 폴클렌징이나 스킨로션이나 색조화장등 얼굴에 바르는건 다 사오시는게 좋아요. 하지만 다른 세탁세제, 피죤, 주방세제 등 중국 것도 충분히 좋고 저렴하니 중국 와서 사세요~! 한국 음식 사와서 중국 친구들이랑 먹으면 엄청 좋아하니깐 많이 가져오세요.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도서관 1층과 2층은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입니다. 책 종류도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다만 다 중국어입니다. 그리고 3층부터 6층은 독서실입니다. 모두 개방형이고 독서실은 저의 유학생도 예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책은 빌릴 수가 없어서 만약 빌리고 싶다면 중국인 친구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복사나 인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국 친구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도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복잡해요 유학생의 집 기숙사 앞에 주방과 회의실, 자습실이 있습니다.



강의실에는 에어컨의 냉방과 난방이 잘 작동해서 수업 때 수업에 집중 할 수 있고 강의실도 깨끗하고 ppt도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고 가셔야 합니다. 야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오른쪽 끝에는 빵집이 있습니다. 초코빵과 수박 주스를 추천합니다. 중국 친구들도 좋아해서 매우 잘 팔리는 메뉴입니다. 세탁실은 13동 여자기숙사 1층에 6대가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아서



3위안을 결제하면 30분간 세탁을 시작합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가끔 세탁기가 더러울 때가 있지만 거의 깨끗한 편입니다. 건조기도 2대 있지만 자연 건조로 하는 것이 냄새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자연 건조로 말렸습니다. 학교 대문 오른쪽에는 택배실과 중국은행ATM 기계가 있습니다. 택배실은 오후 5시쯤에는 문을 닫습니다. 문자로 인증번호와 함께 도착했다고 연락은 주십니다. 은행 기기에서는 인출만 가능하니 다른 업무는 은행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학교에 운동장이 있어 축구, 조강이 가능하고 농구장도 실내 실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외에 탁구장, 배드민턴장, 수영장(수영장은 현재 유학생 이용 불가),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용카드를 만들고 저의 이름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카드 만들기 전에는 중국 친구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매점도 하나 있습니다. 매점 안에 고기완자 꼭 드셔보세요.

교환학생 파견 수기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점 혹은 소감
2. 수업 외 활동 내용(여행, 교내 외 각종 활동했던 경험)
3.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의견 등

교환학생을 시작하기전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중국인 단짝친구를 만들자. 한국에서도 여러 친구가 있지만 정말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환학생을 했을 때 중국 단짝친구를 만들고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가장 적었고 거의 모든 시간을 중국인 친구와 보냈습니다. 친해졌던 중국인 친구랑 점심과 저녁도 같이 먹고 공부와 숙제도 같이 끝내고나면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며 야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친구가 가끔 학교 밖을 나갈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행복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결심으로 중국 생활을 한 이유는 중국교환학생의 큰 메리트는 중국사람들과 친해지고 문화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한국인에게만 의존하고 아주 가끔 중국인과 놀고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듣는다면 그건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며 배우는 것과 다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친구들이 제게 섭섭해 했을 때 내가 중국에 온 목표를 말해주고 이후에 중국 친구와 놀러가기전에 너의 의견도 물어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인 친구와 친해지면서 말이 정말 빠르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못알아 들어서 번역기를 많이 사용했고 그냥 미소 짓는 일이 많았지만 이 친구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난 것도 정말 행운이었고 이 친구 덕분에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다들 성숙해졌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배운 것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는 한국친구와 같이 보다는 혼자서 혹은 중국 친구와 같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인과 아예 안노는 것이 아니라 가끔 경찰대 친구들이 밖으로 못나갈 때 한국인 끼리 나가서 놀면 그것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그러지 마시고 중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고 가시면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저장경찰대에는 순천향대학교에 있는 ‘익스체인지 파트너(글로벌 빌리지에 거주하게 되면 본인이 선택한 국가 친구 3명과 매주 1시간씩 교류하는 시간)’ 같은 기회가 없습니다. 비슷한 기회로는 경찰대 학생 중 2학년 때 한국어를 배우고 3학년 때 한국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장경찰대의 유일한 한국인선생님 박선생님이 이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선생님께서 저희 시간이 비어있다면 수업에 와서 선생님을 도와 친구들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외에는 본인이 스스로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경찰대 학생이라서 많이! 정말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많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같이 먹어도 좋고 배달음식을 시켜서 같이 먹어도 좋고 운동을 같이 하자고 해도 좋고 친구들이 먼저 손내밀기를 기다리지말고 먼저 다가가세요!! 모두 좋아해줍니다. 학교에 한국인이 극 소수라서 정말 다들 친해지고 싶은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을 못 거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학기중 공휴일기간이 길다면 중국친구와 친구집이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보세요 친구가 갑자기 쓰는 사투리도 너무 새롭고 재미있는데 새로 보이는 풍경들도 너무 설레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수백가지의 요리가 있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다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할 것이 아니라 맛을 한번 봐보든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중국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갯잎을 잘 못먹습니다. 중국 친구들에게는 갯잎 특유의 향이 마치 저희가 잘 먹지 못하는 고수와 같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에게는 너무 맛있는데. 이렇듯 다름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다가가

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정말 당신은 멋쟁이

원래 아침 먹는 습관이 없었는데 중국 아침이 너무 맛이 있고 속이 편해서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학교식당이 아침, 점심, 저녁 메뉴도 다르고 문 여는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서 다 먹어보세요. 아침메뉴중에 썬씨엔미엔이랑 뽕미엔 추천해드려요~~ 너무 맛있어요. 배달 요리도 대박 좋아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에게는 집인 이 학교 이제는 가족 같아진 친구들과 이곳의 삶 모두 작별해야하니깐요. 친구들에게 마지막에 고마웠다고 너희들이 있어서 이곳 생활이 외롭지 않았고 모든 추억에 너희들이 함께 있어줘서 너무 행복하다고 잘 못하는 중국어로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선물들도 함께요. 원래 이별에 무덤덤한데 이렇게 슬픈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장경찰대는 매학기 큰 공연이 있는데 여기에 원하신다면 한국인들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면 경찰대 친구들도 함께요. 제가 제일 친해진 중국친구는 이 공연을 준비하다가 친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는 못해볼 경험들. 자신만의 이쁜 추억들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분명 잘 하실거예요 파이팅! 다르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찰대 관련 규율인데 한국인에게는 문제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중국인 친구가 생기면 학교의 규율을 다 설명해 줍니다. 관련 규율 물어보면서 서서히 친해져 보세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매달 700위안(약 1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줘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